

국내외 경제  
**현안과 과제**

2010. 7. 21.

| 하반기 소비둔화 가능성 높다  
-민간소비 증가세 약화 배경과 전망

## I. 최근 민간소비 회복세 둔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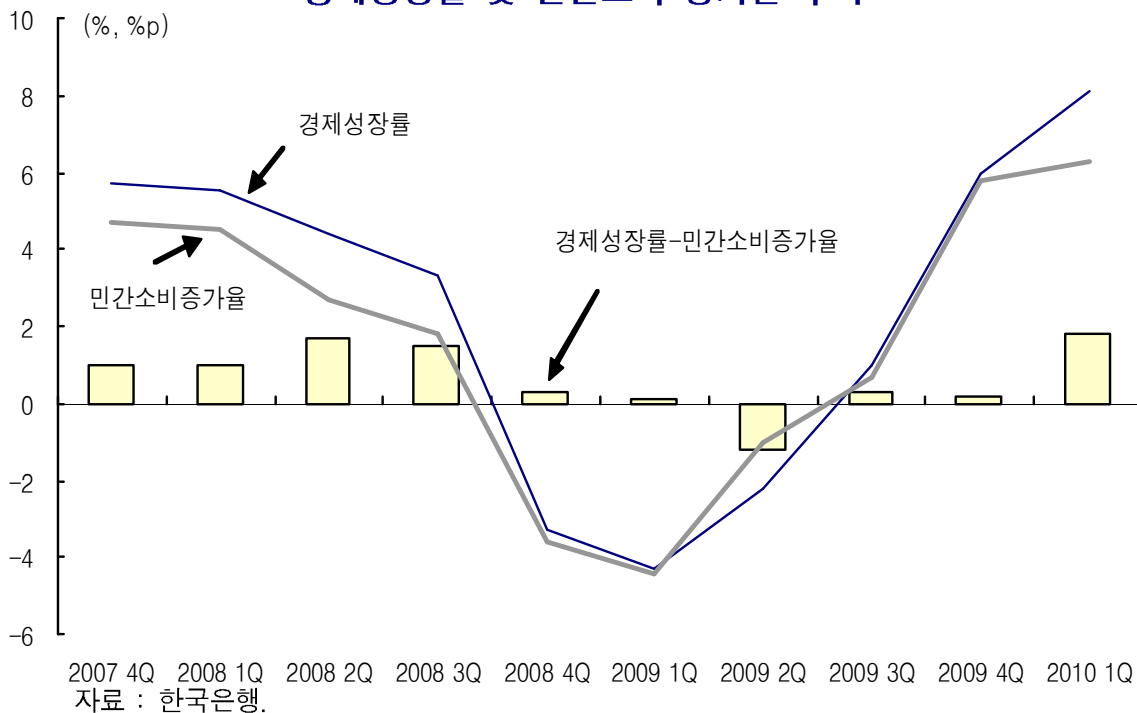
○ 국내 고용 상황 호전과 경기 회복세의 지속으로 소비 회복세도 지속되고 있으나, 최근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

- 소매판매액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음
- 소매판매액이 전년동월대비 3월, 4월, 5월 각각 9.9%, 7.3%, 3.6%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
- 유형별로는 내구재가 전년동월대비 2010년 3월, 4월, 5월 각각 28.3%, 16.5%, 1.8%로 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됨
- 특히, 내구재 중 승용차 판매는 4월까지도 전년동월대비 30.2%의 증가를 보였지만, 5월에는 8.8%의 감소세로 전환됨

○ 한편, 민간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에 미치지 못해 소비 비중이 낮아짐

- 낮은 민간소비 증가율로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도 낮아짐
- 2010년 1/4분기 경제성장률과 민간소비증가율 갭은 1.8%p에 달함
- 이에 따라,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2009년 2/4분기 52.1%에서 2010년 1/4분기 50.8%로 1.3%p 하락함

< 경제성장률 및 민간소비 증가율 추이 >



## II. 민간소비 증가세 약화 배경

○ (개관) 최근에 들어 민간소비 증가율이 약화되는 것은 소득, 자산, 고용, 정책 등 소비 여건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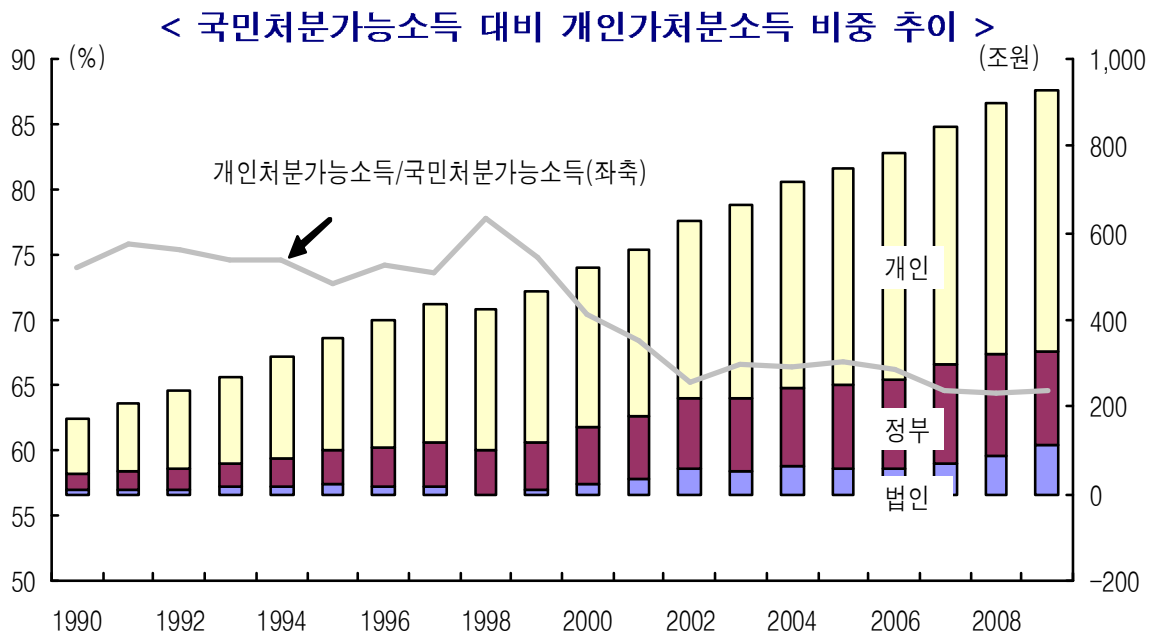
- 가계소득 위축, 가계수지 개선 미흡,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, 가계부채 증가세, 자산가치 하락, 취약계층의 열악한 고용환경, 소비진작책 약화

○ (가계소득 위축) GDP 성장률보다 가계 소득 증가율이 낮은 추세가 계속되면서 가계소비 여력 약화 구조가 고착화됨

- 외환위기 이후 국민처분가능소득 중 개인가처분소득이 차지하는 가계소득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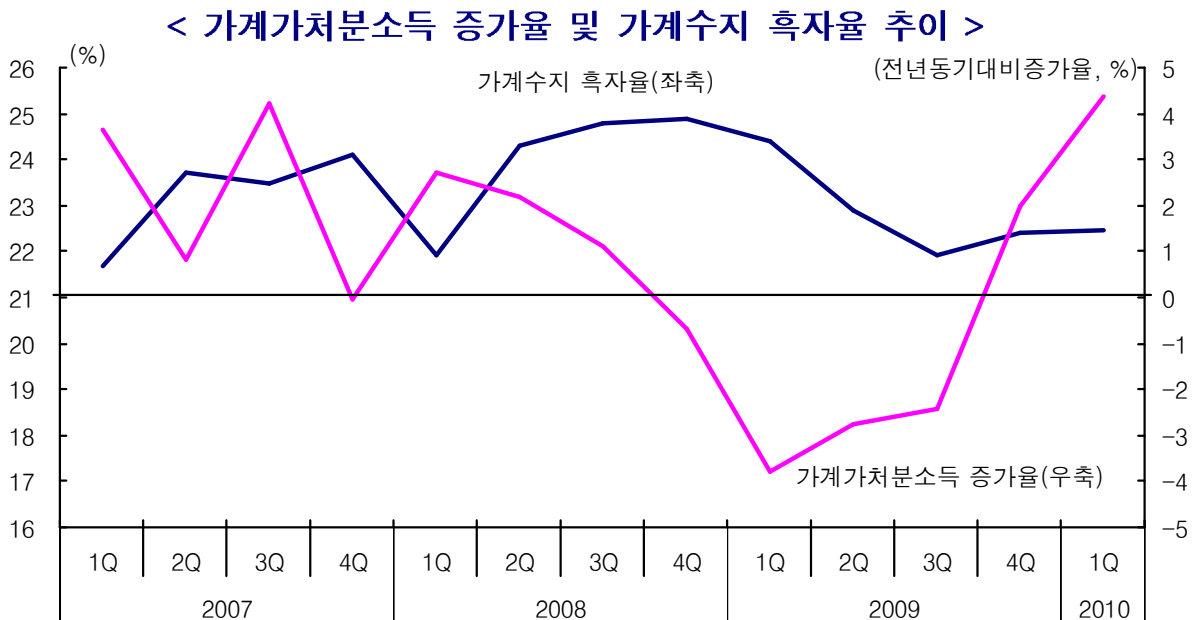
· 국민처분가능소득 대비 개인가처분소득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여 1998년 77.8%에서 2002년 65.3%로 12.5%p 하락

· 국민처분가능소득 대비 개인가처분소득의 비중은 90년대(1990-1999) 평균 74.7%에서 2000년대(2000-2009) 평균 66.4%로 8.3%p 하락함



○ (가계수지 개선 미흡)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, 가계수지 흑자율은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

- 가계가처분소득 대비 가계의 가처분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흑자액 비율은 여전히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함
  - 2008년 3/4분기 가계의 흑자율은 24.8%에서 2010년 1/4분기 현재 22.5%로 2.3%p 낮은 수준임
- 이는 소득 증가율보다 소비 증가율이 더 높았기 때문임
  - 2010년 1/4분기 소득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4.4% 증가하는데 그쳤으나, 소비지출은 전년동기대비 7.1% 증가하고, 비소비지출 역시 전년동기대비 4.6% 증가함



자료 : 통계청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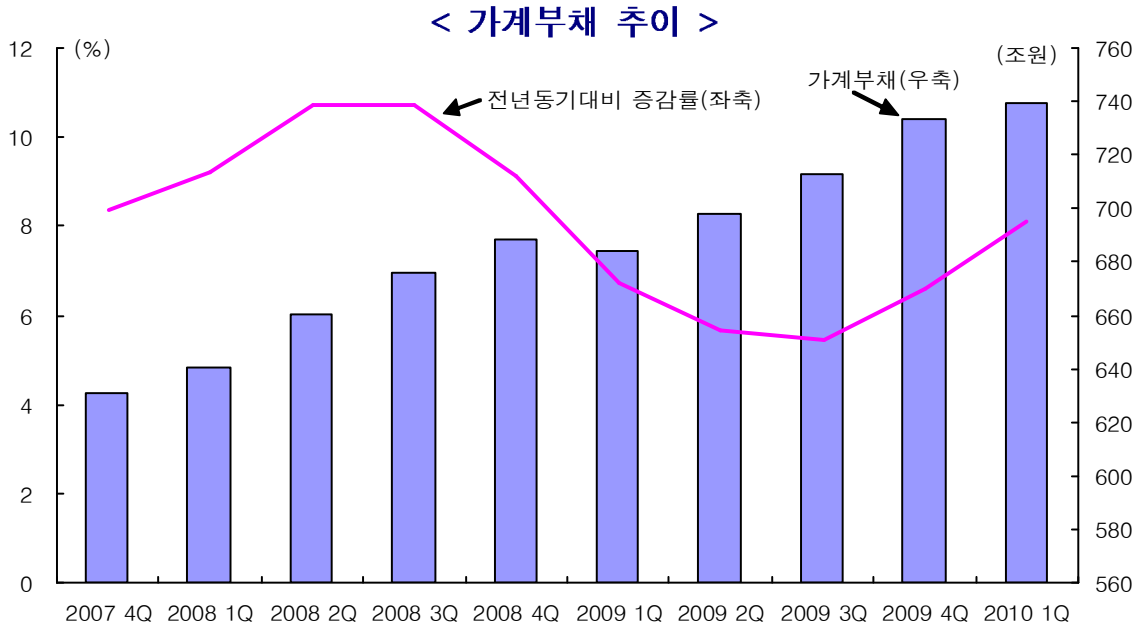
주 : 1) 2인 이상의 전국가구의 실질가계수지를 대상으로 함.

2) 흑자율 = (흑자액/처분가능소득) × 100, 흑자액은 가처분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값으로 구하며,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은 전체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값으로 구함.

○ (가계부채 빠른 증가세로 전환)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금융 위기 이후 감소하다 최근 다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

- 가계부채는 2010년 1/4분기 현재 739조 원으로 글로벌 금융 위기가 시작 전인 2008년 3/4분기 676조 원보다 63조 원 증가함
  - 특히, 가계부채 증가율은 2009년 3/4분기 전년동기대비 5.4%에서 2010년 1/4분기에는 8.1%로 2.7%p 상승하며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

-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부채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에 있음
- 우리나라의 가계금융부채대비 가처분소득은 2009년 1.43배로 같은해 미국, 일본의 각각 1.26배, 1.08배보다 높음



자료 : 한국은행.

**○ (금리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)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상에 따른 금리 변동으로 가계의 금융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**

- 가계의 예대금리 각각 1%p 상승시, 가계의 순이자부담은 월평균 6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
- 2010년 5월말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416조 4,000억 원, 평균 대출금리는 5.33%로 대출금리 1%p 상승시 월 이자부담액은 3,470억 원(연간 4조 1,640억 원)에 달함
- 2010년 5월말 가계의 저축성예금 잔액은 346조 원, 평균 예금금리는 3.77%로 예금금리 1%p 상승시 월 이자수입액은 2,883억 원(연간 3조 4,600억 원)에 달함

**<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의 이자부담 추정 >**

	월 이자부담 증가(A)	월 이자수입 증가(B)	순 이자부담 증가(A-B)
가 계	3,470억 원	2,883억 원	600억 원

자료 : 한국은행.

○ (자산가치 하락)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역자산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큼

- 전국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 전망됨
  - 전국 평균 주택가격지수는 2009년 4월 99.1(2008.12=100)에서 2010년 6월 102.4로 상승. 하지만 최근 두달 연속 정체상태이고 향후 가격 하락세 전망
  - 수도권 주택가격지수는 2010년 3월 101.5(2008.12=100) 기록 후 3개월 연속 하락
- 국내 가계 총자산의 76.8%는 부동산으로 구성(2006년 5월 31일 현재)

○ (취약계층의 열악한 고용조건) 고용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나, 청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의 고용 구조는 열악한 상황에 있음

- 2010년 들어 전체 신규 취업자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, 청년층(15~29세)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
  - 2010년 6월 청년층 실업률은 8.3%로 5월의 6.4%보다 1.9%p 상승하였고, 청년층 실업자수 역시 2010년 4월, 5월, 6월 각각 36.6만 명, 27.4만 명, 35.5만 명으로 높은 수준을 보임

< 취업자 증감 추이 >

(전년동기대비, 만 명, %)

	2008	2009					2010		
		1/4	2/4	3/4	4/4	1/4	2/4	6월	
취업자증감	14.5	-7.2	-14.6	-13.4	-0.1	-0.6	<b>13.2</b>	<b>43.3</b>	<b>31.4</b>
청년층(15~29세)	-11.9	-12.7	-21.2	-9.9	-12.3	-7.7	<b>-1.2</b>	<b>-5.8</b>	<b>-8.6</b>
청년 실업률	7.2	8.1	8.6	8.0	8.1	7.6	<b>9.5</b>	<b>7.7</b>	<b>8.3</b>

자료 : 통계청.

- 고용구조 개선이 미흡하여 취업취약계층의 고용 사정은 열악한 상황
  - 2010년 6월 18시간미만 취업자는 여전히 100만 명 이상이고, 이 중 일자리가 없거나 사업부진 등의 이유로 추가취업을 희망하는 자도 13.5만 명에 달함
- 신규 취업자수가 증가하는 가운데, 취업준비자와 구직단념자도 빠르게 증가
  - 취업준비자는 2009년 6월 59.9만 명이었지만 2010년 6월에는 61.3만 명으로 증가하였고, 구직단념자도 15.3만 명에서 21.2만 명으로 크게 증가

< 18시간미만 취업자 추이 >

(단위: 만 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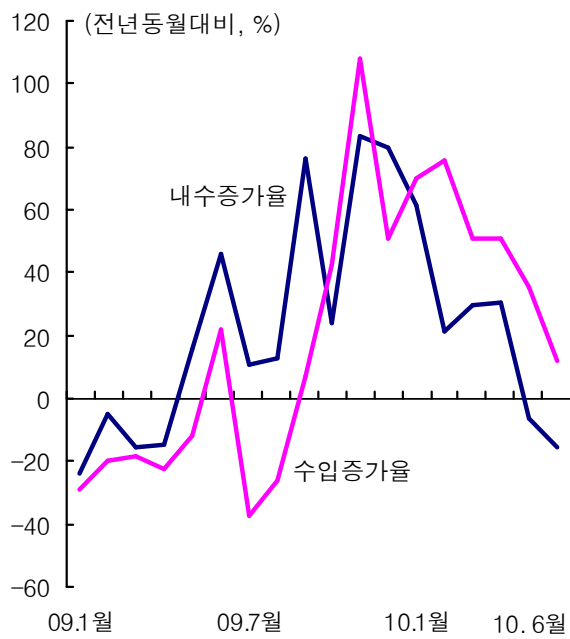
	2009	2010				
	6월	2월	3월	4월	5월	6월
18시간미만 취업자	94.9	133.1	106.6	102.8	105.3	100.0
추가취업 희망자	17.7	17.1	15.6	14.1	14.4	13.5

자료 : 통계청.

○ (소비진작책 약화) 정부의 민간소비 진작책인 노후차 세제 지원 등이 지난해 종료됨으로써 내구재 등의 판매 증가율이 급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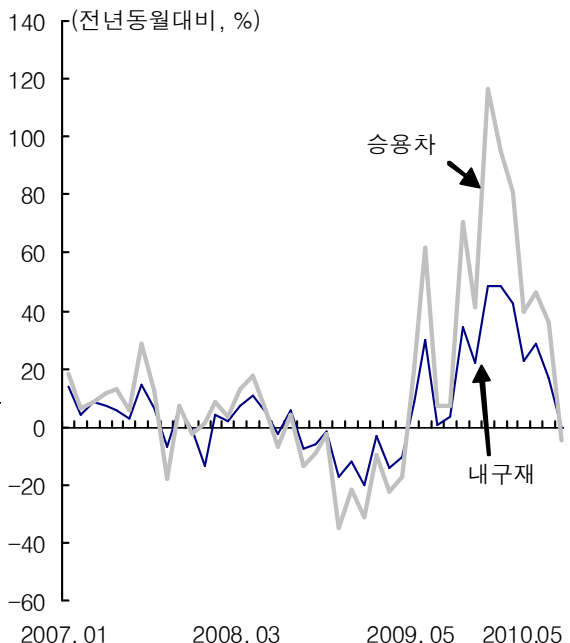
- 정부의 노후차 세제지원이 지난해 종료됨으로써 내구재 중 가장 큰 부문인 자동차의 내수판매 증가율이 급격히 하락
  - 지식경제부에 따르면, 6월 자동차 내수판매는 전년동월대비 15.2% 감소한 12.2만 대였고, 자동차수입은 12.0% 증가한 0.8만 대임
  - 신차효과로 2010년 4월까지 내수판매 증가율을 상승세를 보였으나 2009년 실시된 소비 진작책인 노후차 세제 지원이 2010년 폐지됨에 따라 5월 이후 마이너스 성장세로 전환됨
- 이에 따라 소매판매액은 내구재를 중심으로 소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됨
  - 내구재 판매액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2010년 3월, 4월, 5월 각각 28.3%, 16.5%, 1.8%로 매월 10%p 이상 증가세가 감소하고 있음

< 자동차 내수·수입 증감율 추이 >



자료 : 지식경제부.

< 내구재 판매 증가율 추이 >



자료 : 통계청.

### Ⅲ. 시사점과 대응과제

- 향후 선진국의 경기 성장세 둔화에 따른 수출 증가세 감소, 정부의 재정 여력 약화가 예상되는 만큼 민간소비의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
-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를 방지하기 위해 경제 성장 기조의 유지, 고용 구조 개선, 자산 시장의 안정, 내수시장 확대책 등을 마련해야 함
  - 경제 성장 기조의 유지 : 급격한 금리 인상과 재정 지출 삭감은 경기 급랭을 가져 올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정책 판단이 필요함
    -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 적자 문제를 접근하여 점진적인 적자축소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를 도모하여 민간소비 둔화에 대비
  -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 구조 개선 : 가계 소득 여건 개선을 위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
    - 기업의 투자 여건 개선과 서비스업 육성책 등을 통한 민간 고용 창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
  - 역자산효과 방지를 위한 자산시장 안정 :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통한 자산가치 보전을 통해 역자산효과를 방지해야 함
    - 특히, 일반 가계는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이익보다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신중한 금리 인상이 필요함
  - 외국인 유치 등 내수 시장 확대책 마련 : 고소득층의 소비 활성화와 더불어 신흥국 소비자를 유치하기 위한 내수 시장 확대 방안을 강구함
    - 교육, 의료, 관광 등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내 고소득층의 국내 소비를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중국 등 신흥국 소비자를 유치하여 국내 소비 시장 확대에 힘써야 함

정유훈 선임연구원(2072-6219, youhun@hri.co.kr)